

心系領域疾患 火熱證에 사용된 附子の 活用に 대한 文獻的 研究

이경애 · 권정남* · 이원철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초록】 附子는 흔히 寒證이나 陰證을 치료하는 약물로서 火熱證을 치료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景岳은 附子가 能引火歸源하여 制伏虛熱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였다. 心系영역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附子가 寒證이나 陰證의 경우외에 附子가 火熱證을 치료하는데 이용된 예가 있는지 歷代의 문헌에서 찾아보고 그 處方에서 附子의 역할과 그에 따라 配合되는 약물 및 活用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附子를 이용한 心系영역 질환의 치료범위와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心系영역질환 火熱證의 치료에 사용된 附子의 역할을 살펴보면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가 있으며 이들 유형에 따라 배합되는 약물의 종류도 다르다. 특히 많은 경우에서 滋陰藥과 배합되므로 膩滯하지 않도록 하는 藥物의 配合에 대하여 많은 임상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심단말 : 부자(附子), 심계질환(心系疾患), 화열증(火熱證)

I. 緒論

心系영역 질환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附子를 이용한 處方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附子는 寒證이나 陰證을 치료하는 약물로서 火熱證을 치료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또한 치료 목적에 따라 같이 配合되는 藥物의 類型도 다양하다.

附子는 毛茛科(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한 多年生 草本인 栽培種 바꽃의 塊根에 附生한 子

根¹⁾²⁾으로 辛·大熱·有毒하며, 元陽을 補助하는 主藥으로 能升能降하며 能內達能外散³⁾한 성질을 가진 陽中之陽의 약물이다. 固陽救逆 補火助陽 溫中止痛 逐風寒濕邪⁴⁾하는 효능이 있어 大汗亡陽 吐利厥逆 心腹冷痛 脾泄冷痢 腳氣水腫 風寒濕痺 蹇躄拘攣 陰疽瘡漏 中寒中風 痰厥氣厥 柔痙癱瘓 小兒慢驚⁵⁾ 등 一切의 沈寒痼冷之疾을 치료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또한 附子가 心臟에 미치는 藥理作用을 살펴보면 심근수축을 촉진시켜 厥逆(shock, 심부

1) 辛民敦, 臨床本草學, 서울, 永林出版社, 1988, p263
2) 申信求,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1988, p23
3)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河北,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85, p97
4) 辛民敦, 臨床本草學, 서울, 永林出版社, 1988, p264
5)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上1161

전)時 強心작용으로 心筋순환을 개선하며, aconitine 분해산물에 의한 일정한 鎮痛작용이 있다.6) 이중 간접적인 心筋수축7)이나 強心利尿 효과에 의한 陰證의 浮腫감소8)는 실험이나 임상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이와 같이 附子は 흔히 寒證이나 陰證을 치료하는 약물로서 火熱證을 치료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景岳은 附子가 能引火歸源하여 制伏虛熱9)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附子를 心系질환에 응용하는데 있어서 寒證이나 陰證의 경우외에 附子가 火熱證을 치료하는데 이용된 예가 있는지 歷代의 문헌에서 찾아보고, 그 處方에서 附子의 역할과 그에 따라 配合되는 약물 및 활용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附子를 이용한 心系영역 질환의 치료범위와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II. 本 論

1. 자료조사 및 방법

(1) 자료조사

附子에 대한 氣味, 歸經, 效能 및 主治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해 歷代와 現代의 醫書와 本草學書 中에서 <景岳全書>10), <中藥大全>11), <神農本草經>12), <本草綱目>13), <本草求真>14), <東醫寶鑑>15), <醫學衷中參西錄>16), <醫學入門>17), <湯液本草>18), <臨床本草學>19), <申氏本草學>20), <新編中藥大辭典>21)을 참고로 하였다. 心系영역의 질환에 附子가 사용된 處方을 조사하기 위하여 歷代와 現代의 醫書와 處方書 中에서 <醫學心悟>22), <醫方集解>23), <景岳全書>24), <丹溪心法>25), <醫學入門>26), <東醫寶鑑>27), <中醫內科

-
- 6) 崔樹德, 中藥大全, 河北, 黑龍江科學技術出版社, 1989, p346
 - 7) 梁吉承, 附子 부타놀 分割이 心筋 收縮蛋白에 미치는 影響, 서울, 大韓藥理學雜誌 第12卷 1號, 1976, p1-6
 - 8) 矢數道明, 陰證의 浮腫·腹水에 對する 附子의 利尿效果につらて, 日本東洋醫學會誌 14卷 4號, 1976, p241-5
 - 9)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8, p下367
 - 10)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8, p下367-9
 - 11) 崔樹德, 中藥大全, 河北, 黑龍江科學技術出版社, 1989, p345-8
 - 12)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醫道韓國社, 1976, 卷3 p4-5
 - 13)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上1160-2
 - 14) 黃宮繡, 本草求真, 台北, 宏業書局有限公司, 1986, p24-5
 - 15) 許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0, 湯液編 卷3 p271
 - 16)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河北,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85, p中97
 - 17) 李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6, 本草編 p262-3
 - 18) 王好古, 東垣十種醫書;湯液本草,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383
 - 19) 辛民教, 臨床本草學, 서울, 永林出版社, 1988, p263-5
 - 21) 新文豐出版公司, 新編中藥大辭典,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1167
 - 22) 李源哲, 國譯醫學心悟, 서울, 書苑堂, 1994
 - 23) 汪昂, 醫方集解(國譯), 서울, 大星文化社, 1984
 - 24) 張介賓, 景岳全書 上·下, 서울, 大星文化社, 1988
 - 25) 朱震亨, 丹溪醫集;丹溪心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 26) 李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6, 雜病編
 - 27) 許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0, 雜病編, 外形編

學>28), <醫學衷中參西錄>29), <方藥合編解說>30), <本草綱目>31), <萬病回春>32), <醫學正傳>33)을 참고로 하였다. 心系영역 질환은 <東醫心系內科學>34)35)의 구성을 참고하여 心悸, 怔忡, 動悸, 心胸痛, 頭痛, 眩暈, 中風, 類中風, 厥, 痙病, 痿, 痺, 昏迷, 癲狂痢, 痴呆, 健忘, 發熱, 浮腫, 喘證, 血證 등을 선정하였다.

(2) 방법

① 附子の 氣味, 歸經, 效能 및 主治를 살펴 보았다.

② 각 문헌에서 心系영역 질환에 附子가 사용된 處方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火熱證에 응용된 경우를 살펴보았다.

③ 心系영역 질환의 火熱證에 附子가 사용된 處方의 구성약물 사용빈도를 도표로 정리하였다.

④ 心系영역 질환의 火熱證에 附子가 사용된 處方에서 附子의 사용량과 修治, 製法, 服用法을 도표로 정리하였다.

⑤ 心系영역 질환의 火熱證에 附子가 사용된 處方의 치료질환 빈도를 도표로 정리하였다.

2. 附子의 氣味, 歸經, 效能 및 主治

歷代 및 現代 文獻의 내용에서 본 논문에 참고서적으로 이용된 書籍이 인용된 경우는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였으며, 歸經은 그에 대한 언급이 있는 書籍만 기록하였다.

(1) 氣味

景岳全書: 氣味辛甘 醜者大鹹 性大熱 陽中之陽也 有毒

中藥大全: 辛 大熱 有毒

神農本草經: 辛溫

本草綱目: 辛溫 大有毒

本草求真: 辛大熱 純陽有毒

東醫寶鑑: 性大熱 味辛甘 有大毒

醫學衷中參西錄: 味辛 性大熱

醫學入門: 辛甘酸 熱毒

湯液本草: 氣熱 味大辛. 辛甘溫 大熱 有大毒

臨床本草學: 辛甘 熱 有毒

申氏本草學: 性大熱 大毒 味辛 味辣

新編中藥大辭典: 辛甘 熱 有毒

(2) 歸經

中藥大全: 12經

湯液本草: 心 三焦 命門

臨床本草學: 心 脾 腎

申氏本草學: 脾 腎 膀胱 三焦

新編中藥大辭典: 心 脾 腎

(3) 效能 및 主治

景岳全書: 除表裏沈寒 煖五臟 回陽氣 能引火歸源 制伏虛熱

中藥大全: 回陽補火 逐風寒濕

陰寒內盛 大吐 大瀉 大汗 身涼肢冷 陽衰欲脫 脈微欲絕. 腎陽衰弱的 腰膝冷痛 脾陽衰弱的 泄瀉 形寒畏冷 風寒濕痺

神農本草經: 主風寒咳逆邪氣 溫中 金瘡 破癥堅 積聚血癥 寒濕痿躄 拘攣膝痛 不能行步

本草綱目: 三陰傷寒 陰毒寒疝 中寒中風 痰厥氣厥 柔痙癱瘓 小兒慢驚 風濕瘋痺腫滿脚氣 頭風 腎厥頭痛 暴瀉脫陽 久痢脾泄 寒癰瘡久 泄嘔噦 反胃噎格 癰疽不斂 久漏冷瘡 合葱涕塞耳治聾

本草求真: 補先天命門真火 一切沈寒痼冷之症 冷痢寒瀉 霍亂轉筋 拘攣風痺 癥瘕積聚 督脈爲病 脊強而厥 小兒晚驚 痘瘡灰白 癰疽不斂

東醫寶鑑: 補三焦厥逆 六腑寒冷 寒濕痿躄 墮胎

28) 上海中醫學院. 中醫內科學, 香港,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83
29)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河北,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85
30) 申載鏞. 方藥合編解說, 서울, 成輔社, 1989
31)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32) 龔廷賢. 萬病回春, 서울, 醫聖堂, 1993
33) 虞博.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34) 具本泓 外 4名, 東醫心系內科學, 서울, 書苑堂, 1991
35) 李京燮 外 18名, 東醫心系內科學, 서울, 書苑堂, 1995

醫學衷中參西錄：凝寒鋼冷之結于臟腑 着于筋骨 痺于經絡血脈者 皆能開之 通之。

溫通之中 又大具收斂之力 故治汗多亡陽腸冷泄瀉 下焦陽虛陰走 精寒自遺。

善補命門相火 而服之能使心脈躁動加速 是于君相二火皆能大有補益也。

醫學入門：虛寒風濕行經速 欬逆厥冷腹心疼 霍亂拘痲筋蹇縮

湯液本草：本草云 主風寒咳逆邪氣 溫中 金瘡 破癥堅積聚 血癥 寒濕 蹇躄拘攣 膝痛 脚痛 冷弱 不能行步 腰脊風寒 心腹冷痛 霍亂轉筋 下痢赤白 堅肌骨 強陰 墮胎 爲百病之長

臨床本草學：固陽救逆 補火助陽 溫中止痛 逐風寒濕邪

申氏本草學：腰脊風寒 脚氣寒冷 心腹冷痛 霍亂轉筋 痢疾赤白 溫中強陰 堅肌骨(別錄)

新編中藥大辭典：回陽補火 散寒除濕. 治陰盛格陽 大汗亡陽 吐利厥逆 心腹冷痛脾泄冷痢 脚氣水腫 小兒慢驚 風寒濕痺 蹇躄拘攣 陰疽瘡漏 一切沈寒痼冷之疾

3. 心系영역 질환에서 附子가 사용된 處方과 效能

各 文獻에 본 논문에서 참고문헌으로 이용된 書籍이 인용된 경우는 그 處方名은 같아도 處方內容이나 運用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중복 기재하였다. 또한 같은 處方名이라도 各 文獻에서 火熱證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는 處方만을 기재하였다. 이 가운데 火熱證에 사용 되는 내용은 진하게 표시하였다.

1) 醫學心悟³⁶⁾

- (1) 附子理中湯；中風(寒風이 臟에 直中), 水腫, 類中風(寒中)
- (2) 三生飲；中風(寒風이 臟에 直中)
- (3) 虎骨膠丸；中風(癱瘓), 痺(鶴膝風)

- (4) 小續命湯；中風(癱病)
- (5) 地黃飲子；中風(腎經이 虛寒하여 厥逆이 된 증상), 類中風(火中)
- (6) 八味地黃丸(桂附八味丸)；類中風(火中；腎經陽虛 火不歸原), 喘(腎經의 眞陽不足 火浮於上), 頭痛(下虛한데 浮火가 떠올라 上實, 陽虛의 眞頭痛), 眩暈(命門火衰로 眞陽이 위로 떠오르는 경우)
- (7) 薑附湯；類中風(寒中), 眞心痛
- (8) 羌活附子湯；頭痛(寒客犯腦)
- (9) 金匱腎氣丸；水腫(腎經이 陽虛하여 眞火가 水를 통제할 수 없을 때)
- (10) 十味腎氣丸；痰飲(命門眞火 衰弱하여 寒痰이 위로 넘치는 경우)

2) 醫方集解³⁷⁾

- (1) 桂附八味丸；大熱煩渴, 陰虛發熱
- (2) 羊肉湯；失血(熱客上焦)
- (3) 小續命湯；中風
- (4) 三生飲；中風
- (5) 地黃飲子；中風(風邪, 孤陽發越)
- (6) 附子理中湯；中寒
- (7) 四逆湯；陰證의 厥逆(陰盛格陽)
- (8) 朮附湯；發厥心痛(中寒)
- (9) 當歸四逆湯；寒厥
- (10) 回陽返本湯；寒厥(陰盛格陽)
- (11) 眞武湯；心悸, 頭眩(水氣凌心 虛陽內動)
- (12) 白朮附子湯；風虛頭眩
- (13) 芎朮除濕湯；頭痛, 眩暈(寒濕)
- (14) 益元湯；陰躁(戴陽, 陰盛格陽)
- (15) 回陽救急湯；寒厥
- (16) 實脾飲；浮腫(陰水)

3) 景岳全書³⁸⁾

- (1) 右歸飲；眩暈(陰中之陽虛, 陰虛), 怔忡(命門火虧 眞陽不足), 喘促(下寒)

36) 李源哲, 國譯醫學心悟, 서울, 吉苑堂, 1994. p121, 135, 147, 149-154, 156, 175, 177-8, 180-2, 192-3, 204, 210-1, 229

37) 江玷, 醫方集解(國譯),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44, 47-8, 95-6, 239, 288-291, 296-9, 318-9, 321-5, 327, 331-2, 344-7, 392

38)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8. p上200-2, 222, 225-6, 244, 374-5, 378-9, 383, 403-4, 407, 542-3, 619, 625-6, 670-1, 695, 下417, 440, 443, 473-4, 486, 488, 597, 640-2, 645, 648, 655, 657, 666-7, 671

- (2) 正元散; 眩暈(陽虛)
 - (3) 黑錫丹; 眩暈(痰氣壅塞, 上盛下虛, 腎水虧竭, 心火炎盛), 頭痛(下元虛寒, 眞頭痛)
 - (4) 參附湯; 眩暈(眞陽不足), 喘促(眞陽不足, 上氣喘急), 痙病(陽氣大虛)
 - (5) 朮附湯(白朮附子湯); 眩暈(風虛)
 - (6) 心腎丸; 怔忡(水火不濟, 心下怔忡),
 - (7) 金匱腎氣丸; 不寐(脾腎陽虛, 不能行水), 喘促(水因氣虛)
 - (8) 五生丸; 癰瘤(寒痰)
 - (9) 鎖陰煎; 厥逆(陰虛於下, 格陽於上), 吐血(格陽虛火), 衄血(格陽, 上熱下寒)
 - (10) 四味回陽飲; 厥逆(氣虛, 元陽虛脫)
 - (11) 六味回陽飲; 厥逆(陰陽將脫)
 - (12) 四逆湯; 厥逆(寒厥, 裏寒外熱)
 - (13) 沈香桂附丸; 厥逆(厥冷, 陰盛陽虛)
 - (14) 薑附湯; 厥逆(厥冷轉筋)
 - (15) 附子理中湯; 厥逆(虛寒)
 - (16) 芪附湯; 痙病(陽氣大虛)
 - (17) 羌活附子湯; 頭痛(冬月犯寒)
 - (18) 八味地黃丸; 吐血(格陽虛火), 衄血(格陽, 上熱下寒), 齒齲舌血(陽虛於下, 虛火上浮), 痿證
 - (19) 石刻安神丸; 痿證(眞氣虛)
 - (20) 小續命湯; 中風(風寒在經)
- 4) 丹溪心法³⁹⁾
- (1) 小續命湯; 中風(風中腑)
 - (2) 省風湯; 中風(痰盛)
 - (3) 實脾飲; 水腫(陰水)
 - (4) 薑附湯; 厥(寒痰, 中寒)
 - (5) 四逆湯; 厥(陰厥)
 - (6) 烏梅丸; 厥(胃冷), 心脾痛(胃冷, 蛔蟲攻心痛)
 - (7) 續命湯; 癰
 - (8) 正元散; 頭眩
 - (9) 黑錫丹; 頭眩(早起眩暈)
 - (10) 芎朮除眩湯; 頭眩(感濕感寒)
 - (11) 扶陽調胃湯; 心脾痛(寒氣客於腸胃, 胃脘當心而痛)
- 5) 醫學入門⁴⁰⁾
- (1) 黑錫丹; 頭眩(風痰虛火, 客熱), 頭痛, 吐血(下虛極而氣壅, 血不歸元)
 - (2) 附子理中湯; 眩暈(寒證), 痺風(寒痺)
 - (3) 芎朮除眩湯; 頭眩(感寒濕)
 - (4) 羌活黑附湯; 頭痛(風寒入腦)
 - (5) 川附丸; 痺風(陽虛陰盛)
 - (6) 古羌附湯; 厥心痛(寒厥)
 - (7) 連附六一湯; 厥心痛(熱證)
 - (8) 玄武湯; 水腫(中寒, 陰水)
 - (9) 實脾散; 水腫(陰水發腫)
 - (10) 加味八味丸; 水腫(腎虛, 濕熱)
 - (11) 古沈附湯; 水腫(陽虛, 上盛下虛)
 - (12) 朮附湯; 水腫(腎虛)
 - (13) 小續命湯; 水腫(風腫)
 - (14) 古桂附湯; 吐血(胃寒)
 - (15) 礬附丹; 便血(陽虛)
 - (16) 八味丸; 水腫(陰寒濕腫), 喘(腎冷, 元氣不能納)
 - (17) 引神歸舍丹; 癰(驚痰, 心氣不足, 并治心風), 驚悸, 怔忡, 健忘(清氣不足, 痰火濁氣上攻)
 - (18) 驚氣丸; 癰(驚痰)
 - (19) 四逆湯; 厥(寒泣血, 發厥)
 - (20) 當歸四逆湯; 厥(寒厥)
 - (21) 既濟湯; 虛煩
- 6) 東醫寶鑑⁴¹⁾
- (1) 附子湯; 痺證(寒痺)
 - (2) 羚羊角湯; 痺證(筋痺)
 - (3) 小續命湯; 中風(風氣太盛, 心火暴升), 痙

39) 朱震亨, 丹溪醫集: 丹溪心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上202, 204, 210, 306-7, 357, 360, 374-6, 383-4

40) 李樾,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6, 雜病編 p22-5, 59, 60, 72, 105-8, 153, 160, 163, 179, 183, 197-8, 219, 249, 255, 266, 289, 291, 349, 370, 372, 379-381, 397

41) 許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0, 雜病編 권2 p164, 166-8, 186-8, 192-3, 195, 198, 201, 209, 210-1, 228, 권3 p305-6, 336-7, 408, 外形編 권3 p303-6, 310, 315-6

- (4) 天麻丸；中風(中風熱證)
 - (5) 八寶回春湯；中風(中風虛症), 風痲
 - (6) 加味大補湯；中風(手足癱瘓)
 - (7) 星附散；中風(手足癱瘓)
 - (8) 附子理中湯；中寒(中寒雖燥熱煩渴)
 - (9) 朮附湯；中寒, 厥心痛
 - (10) 迴陽湯；中寒
 - (11) 既濟湯；虛煩(陰虛內熱)
 - (12) 倉卒散(梔附湯)；心胃痛
 - (13) 連附六一湯；心胃痛, 熱心痛(積熱攻心)
 - (14) 扶陽調胃湯；冷心痛
 - (15) 神聖復氣湯；腎心痛(上熱如火 下寒如冰)
 - (16) 九痛元；心痛(積冷心胸痛)
 - (17) 三五七散；頭痛(風寒)
 - (18) 羌活附子湯；頭痛(大寒犯腦)
 - (19) 芎朮除眩湯；頭痛(濕寒)
 - (20) 五獸三癘丸；痿病(肝腎俱虛)
 - (21) 引神歸舍丹；健忘(心風), 癲癇
 - (22) 驚氣元；癲癇(因驚失心)
- 7) 中醫內科學⁴²⁾
- (1) 附桂八味丸；喘(心身虛損), 心絞痛
 - (2) 溫陽利水湯(真武湯)；心悸, 怔忡(風濕侵入), 水腫(陰水)
 - (3) 黑錫丹；心悸, 怔忡(風濕侵入)
 - (4) 實脾飲；水腫(陰水)
 - (5) 濟生腎氣丸；水腫(陰水, 虛陽撥動)
 - (6) 右歸丸；頭眩(腎精不足)
 - (7) 參附湯；中風(中臟腑 脫證), 厥症 182
 - (8) 地黃飲子；中風(中臟腑 脫證, 虛陽上浮)
 - (9) 四味回陽飲；厥症(氣厥)
 - (10) 桂枝附子湯；痺症(着痺)
 - (11) 四逆湯；心絞痛(陽虛)
- 8) 醫學衷中參西錄⁴³⁾
- (1) 熄風湯；類中風(陰分虧損 陽脫上奔)
 - (2) 既濟湯；陰虛勞熱, 心疼, 脫證(陰陽兩虛 上熱下涼)
- 9) 方藥合編解說⁴⁴⁾
- (1) 地黃飲子；中風(孤陽發越)
 - (2) 加味大補湯；中風癱瘓(氣血大虛)
 - (3) 八寶迴春湯；中風虛證
 - (4) 真武湯；發熱, 頭眩(腎中之陽虛 虛陽內動), 心悸(心虛, 水停心下)
 - (5) 四逆湯；厥(寒厥)
通脈四逆湯；厥(假熱)
朮附湯；中寒 發厥心痛
回陽返木湯；厥(陰盛格陽)
 - (6) 附子理中湯；中寒
 - (7) 壯原湯；浮腫, 喘急(下焦虛寒)
 - (8) 復元丹；浮腫, 喘急(真火既虧)
 - (9) 鎮陰煎；吐血, 衄血(陰虛格陽 眞陽失守)
 - (10) 扶陽助胃湯；胃脘當心痛(寒氣客於腸胃)
 - (11) 小續命湯；中風(陰虛火旺 痰火上湧)
 - (12) 實脾散；浮腫(陰水, 脾胃虛寒)
 - (13) 連附六一湯；心痛, 胸痛(熱鬱)
- 10) 本草綱目⁴⁵⁾
- (1) 三生飲；中風痰厥
 - (2) 羌活湯；中風偏廢
 - (3) 必效散；風寒頭痛(偏正頭痛)
 - (4) 薑附湯；中寒昏困
 - (5) 神砂一粒丹；心痛(寒厥)
- 11) 萬病回春⁴⁶⁾
- (1) 加味大補湯；中風(氣血大虛 癱瘓)
 - (2) 健步虎潛丸；中風(屬虛熱)
 - (3) 附子理中湯；類中風(中寒)

42) 上海中醫學院, 中醫內科學, 香港,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83, p21, 32, 106-7, 160, 171, 182-3, 202, 314, 698-9, 701-4, 707-8

43)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河北,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85, p上23-4, 308-9

44) 申載鏞, 方藥合編解說, 서울, 成輔社, 1989, p21-6, 53-4, 62, 76, 95-7, 134, 175

45)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上1164, 1167-9

46) 龔廷賢, 萬病回春, 서울, 醫聖堂, 1993, p51-3, 59, 63, 221, 223

- (4) 天麻丸; 中風(風熱)
- (5) 參附湯; 眩暈(眞陽不足 上氣喘急)
- (6) 五補丸; 麻木(氣虛受風濕)

12) 醫學正傳⁴⁷⁾

- (1) 小續命湯; 中風
- (2) 羌活附子湯; 頭痛(寒氣犯腦)
- (3) 麻黃附子細辛湯; 頭痛(足寒氣逆 寒厥頭痛)
- (4) 通脈四逆湯; 厥(陰厥)
- (5) 碧霞丹; 癲狂癇(痰涎壅塞)
- (6) 連附六一湯; 心痛
- (7) 倉卒散; 心痛(腹中冰冷)
- (8) 朮附湯; 心痛(寒厥)

4. 心系영역 질환 火熱證에서 附子가 사용된 處方과 內容

1) 地黃飲子

* 醫學心悟

熟地黃 2錢 / 巴戟 山茱萸肉 肉蓯蓉 石斛 附子炮 五味子 白茯苓 各 1錢 / 石菖蒲 桂心 麥門冬 遠志 各 5分 / 薄荷少許, 薑 1片, 棗 2枚, 水煎服.

* 醫方集解

熟地黃 巴戟 山茱萸 肉蓯蓉 附子炮 官桂 石斛 茯苓 石菖蒲 遠志 麥門冬 五味子 各等分, 每回 5錢을 복용하되 薄荷少許와 薑3棗2를 넣어煎服.

* 中醫內科學

乾地黃 巴戟 山茱萸肉 石斛 肉蓯蓉 五味子 肉桂 白茯苓 麥門冬 附子 菖蒲 遠志 (宣明論)

* 方藥合編解說

熟地黃 巴戟 山茱萸 肉蓯蓉 石斛 遠志 五味子 白茯苓 麥門冬 各 1錢 / 附子炮 官桂 石菖蒲 各 5分 / 薑3 棗2, 薄荷少許, 水煎하여 空心에 服用.

2) 八味地黃丸(桂附八味丸)

* 醫學心悟

大熟地黃 4錢 / 山茱萸肉 山藥 各 2錢 / 牡丹皮 茯苓 澤瀉 各 1.5錢 / 肉桂附子 5分, 水煎服 或은 蜜丸 梧子大.

* 醫方集解(桂附八味丸)

地黃 8兩 / 山茱萸 山藥 各 4兩 / 茯苓 牡丹皮 澤瀉 各 3兩 / 附子 肉桂 1兩, 蜜丸하여 空心에 鹽湯으로 삼김. 겨울에는 溫酒로 삼김.

* 景岳全書

熟地黃 8兩 / 山茱萸 山藥炒 各 4兩 / 牡丹皮 澤瀉 白茯苓 各 3兩 / 肉桂 製附子 各 1兩, 細末하여 地黃膏와 棟蜜로 桐子大로 丸을 만들어 每 7-80丸을 空心食前 淡鹽湯으로 삼키거나 水煎服.

* 醫學入門(八味丸)

山藥 山茱萸 各 4兩 / 茯苓 澤瀉 牡丹皮 各 3兩 / 生地黃 8兩 / 附子 桂心 各 1兩, 梧子大로 蜜丸하여 每 50丸 空心에 白湯이나 溫酒로 삼킨다.

* 中醫內科學(濟生腎氣丸)

熟地黃 山藥 山茱萸肉 牡丹皮 茯苓 澤瀉 附子 肉桂(濟生方)

3) 加味八味丸

* 醫學入門

附子 2兩 / 白茯苓 澤瀉 官桂 牛膝 車前子 山藥 山茱萸 牡丹皮 各 1兩 / 熟地黃 5錢, 가루내어 梧子大로 蜜丸하여 每 70丸 空心 米飲으로 삼킨다.

4) 羊肉湯

* 醫方集解

當歸 芍藥 牡蠣 各 1兩 / 龍骨 5錢 / 生薑 附子炮 各 2兩 / 桂枝 7.5錢, 每回藥材 1兩과 羊肉 4兩에 蔥白을 加하여 煮服한다.

47) 虞搏,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p29, 177, 182-3, 266, 269

5) 益元湯

* 醫方集解

附子炮 乾薑 艾葉 黃連 知母 人參 麥門冬 五味子 甘草 加 生薑 大棗 蔥白 擘 童便 1 匙를 넣어 冷服.

6) 黑錫丹

* 景岳全書

黑錫炒末 2兩 / 硫黃 2兩 / 肉桂 5錢 / 附子炮 木香 沈香 茴香 故紙 陽起 石菖蒲 巴 肉豆蔻 金鈴子 各 1兩, 極細末하여 地上에 두어 火毒을 제거하고 나머지 약과 黑光色이 되도록 研하여 桐子大로 酒糊丸하여 空心에 薑鹽湯으로 삼킨다.

* 醫學入門

黑錫 硫黃 各 2兩 / 附子 故紙 肉豆蔻 小茴香 川棟子 陽起石 木香 沈香 菖蒲 各 1兩 / 肉桂 5錢, 黑錫을 溶化시켜 조금씩 硫黃을 넣어 1片이 이루어지면 地上에서 火毒을 제거하고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研하여 나머지 약을 가루내어 梧子大로 酒糊丸하여 陰乾한 후 주머니에 넣어 光熱하도록 비벼 每 3-50丸 空心에 薑鹽湯이나 棗湯으로 삼킨다.

7) 心腎丸

* 景岳全書

牛膝 肉蓯蓉 熟地黃 各 2兩 / 菟絲子 3兩 / 人參 黃芪 當歸 山藥 鹿茸 附子炮 白茯苓 五味子 龍骨 遠志 各 1兩, 細末하여 酒炙麵糊丸 桐子大하여 每 100丸을 心에 棗湯이나 清湯으로 삼킨다.

8) 鎮陰煎

* 景岳全書

熟地黃 1-2兩 / 牛膝 2錢 / 炙甘草 1錢 / 澤瀉 1.5錢 / 肉桂 1-2錢 / 製附子 5-7分 或은 1-3錢, 水煎服하되 治格陽喉痺上熱에는 冷服한다.

* 方藥合編解說

熟地黃 1-2兩 / 附子 5-7分 或은 1-3錢 / 牛膝 2錢 / 澤瀉 1.5錢 / 肉桂 1-2 錢 / 炙甘草 1錢, 水煎하여 冷服.

9) 古沈附湯

* 醫學入門

附子 3錢 / 沈香 1.5錢 / 生薑, 水煎服.

10) 既濟湯

* 東醫寶鑑

附子炮 人參 各 2錢 / 麥門冬 1.5錢 / 半夏 1錢 / 甘草 7分, 水煎服.

* 醫學衷中參西錄

大熟地 山茱肉 各 1兩 / 生山藥 生龍骨 生牡蠣 各 6錢 / 茯苓 生芍藥 各 3錢 / 烏附子 1 錢.

11) 神聖復氣湯

* 東醫寶鑑

黃柏 黃連 生地黃 枳殼 3分 (따로 깨끗한 물에 담가 놓는다.)

細辛 川芎 芫荊子 各 2分 (따로 깨끗한 물에 담가 놓는다.)

羌活 柴胡 各 1錢 / 桑本 甘草 各 8分 / 半夏 升麻 各 7分 / 當歸 6分 / 防風 人參 郁李仁 各 5分 / 乾薑 附子炮 各 3分 / 白芥花 3송이, 1貼을 5잔을 부어 끓이다가 2잔이 되면 黃芪 草豆蔻 各 1錢 橘紅 5分을 넣어 같이 끓이다가 1잔이 되면 앞에 담가둔 두 약을 다시 넣고 끓여 1잔이 되면 찌꺼기를 버리고 空心에 熱服한다.

12) 熄風湯

* 醫學衷中參西錄

人參 赭石 5錢 / 大熟地 1兩 / 山茱萸 6錢 / 生芍藥 4錢 / 烏附子 1錢 / 龍骨 牡蠣 各 5錢.

13) 健步虎潛丸

* 萬病回春

黃芪 當歸 枸杞子 龜板 各 1兩 / 知母 牛膝 白朮 白芍藥 生地黃 熟地黃 虎脛骨 杜沖 人參 各 2兩 / 破古紙 麥門冬 各 1兩 / 白茯苓 不果 石菖蒲 酸棗仁 遠志 薏苡仁 羌活 獨活 防風 各 1兩 / 黃柏 3兩 / 五味子 沈香 大附子 (童便浸 透麵裹煨 去皮臍 切四片 又將童便煮乾) 5錢. 가루내어 煉蜜과 猪脊髓 5條를 梧子大로 丸을 지어 每 100丸 溫服하거나 술

로 삼킨다.

14) 四逆湯

* 醫方集解

生附子 1枚 / 乾薑 1兩 / 炙甘草 2兩, 끓여
冷服.

* 景岳全書

炙甘草 2兩 / 炮乾薑 3兩 / 生附子 1枚, 水
煎 溫服.

15) 通脈四逆湯

* 方藥合編解說

四逆湯(炙甘草 3錢 / 乾薑炮 2錢 / 生附子
半枚, 水煎하여 冷服)에 乾薑 倍量.

16) 回陽返本湯

* 醫方集解

四逆湯 合 生脈散 加 陳皮.

* 方藥合編解說

四逆湯 合 生脈散 加 陳皮.

17) 眞武湯

* 醫方集解

附子炮 1枚 / 白朮 3兩 / 茯苓 芍藥 生薑
各 3兩.

* 方藥合編解說

白茯苓 芍藥 附子炮 各 3錢 / 白朮 2錢 /
薑5, 煎湯하여 약간 식혀 복용.

18) 附子理中湯

* 東醫寶鑑

附子炮 人蔘 白朮 乾薑炮 炙甘草 各 1錢, 水
煎服.

19) 連附六一湯

* 醫學入門

黃連 6錢 / 附子 1錢 / 生薑 大棗, 煎熱服.
熱因熱用.

* 東醫寶鑑

黃連 6錢 / 附子 1錢 / 薑3 棗2, 水烈 하여
熱服한다.

* 方藥合編解說

黃連 6錢 / 附子炮 1錢 / 薑3 棗2, 水煎하여

약간 뜨겁게 복용.

* 醫學正傳

黃連 6錢 / 附子炮 1錢 / 薑3 棗1, 水煎하여
약간 뜨겁게 복용.

20) 引神歸舍丹

* 醫學入門

南星 3兩 / 朱沙 1兩 / 附子 7錢, 가루내어
猪心血로 糊丸 梧子大하여 每 50丸을 薑草根
煎湯으로 삼킨다.

21) 小續命湯

* 東醫寶鑑

防風 1.5錢 / 防己 肉桂 杏仁 黃芩 芍藥
人蔘 川芎 麻黃 甘草 各 1錢 / 附子炮 5분, 薑
3 棗2를 넣어 水煎服.

* 方藥合編解說

防風 1.5錢 / 防己 官桂 杏仁 黃芩 芍藥
人蔘 川芎 麻黃 甘草 各 1錢 / 附子炮 5分 /
薑3 棗2, 水煎溫服하고 微取汗한다.

22) 天麻丸

* 東醫寶鑑

生乾地黄 4兩 / 羌活 3.5兩 / 當歸 2.5兩 /
天麻 牛膝 葶藶 玄麥 杜沖 獨活 各 1.5兩 / 附
子炮 5錢, 梧子大로 蜜丸하여 每 100丸 空心에
溫酒나 白湯으로 삼킨다.

* 萬病回春

天麻 牛膝 葶藶 玄麥 1.5兩 / 杜沖 1.7兩 /
大附子 5錢 / 羌活 3.5兩 / 當歸 1.5兩 / 生地
黃 4兩, 梧子大로 蜜丸하여 每 7-80丸 空心에
술이나 白湯으로 삼킨다.

5. 心系영역 질환 火熱證에 附子가 사용된 處
方の 구성약물 사용빈도

위의 각 문헌에서 중복된 處方이라도 구성약
물이나 복용법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
분이 있으므로 각각 다른 處方으로 간주하여
그 약물의 사용빈도를 파악하였다. 모두 81種의
藥物이 사용되었으며 이를 사용빈도가 높은 순
서대로 기재하면 다음과 같다.

地黃(20: 熟14, 乾2, 生4), 薑(20: 生12, 乾8), 肉桂(15), 白茯苓(14), 甘草(13), 山茱萸(12), 人蔘(11), 五味子(9), 麥門冬(9), 大棗(9), 澤瀉(8), 山藥(8), 白芍藥(8), 牛膝(7), 牡丹皮(6), 當歸(6), 遠志(6), 黃連(6), 肉蓯蓉(5), 石菖蒲(5), 巴戟(4), 石斛(4), 龍骨(4), 白朮(4), 羌活(4), 防風(4), 沈香(4), 薄荷(3), 牡蠣(3), 杜沖(3), 川芎(3), 黃芪(3), 葱白(2), 陳皮(2), 知母(2), 黑錫(2), 硫黃(2), 木香(2), 茴香(2), 陽起石(2), 胡蘆巴(2), 肉豆久(2), 故紙(2), 防己(2), 杏仁(2), 黃芩(2), 麻黃(2), 天麻(2), 葶藶(2), 玄蔘(2), 獨活(2), 半夏(2), 黃柏(2), 羊肉(1), 艾葉(1), 鹿茸(1), 川棟子(1), 車前子(1), 南星(1), 朱砂(1), 枳角(1), 赭石(1), 枸杞子(1), 龜板(1), 虎脛骨(1), 破古紙

(1), 草豆蔻(1), 白芥花(1), 郁李仁(1), 升麻(1), 藜本(1), 柴胡(1), 蔓荊子(1), 細辛(1), 木果(1), 酸棗仁(1), 薏苡仁(1), 桂枝(1), 白茯苓(1)

구성약물의 사용빈도가 높은 약물이 비슷한 處方을 임의의 네 부류로 나누어 그 사용빈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6. 心系영역 질환 火熱證에 附子가 사용된 處方의 附子用量과 修治, 製法, 服用法

각 處方에서 사용된 附子의 用量과 修治, 處方의 製法, 服用法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각 문헌에서 중복된 處方이라도 사용량과 복용법 등이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 다른 處方으로 파악하였다.

<표 1>

구 성 약 물	
地黃飲子, 八味地黃丸 加味八味丸, 羊肉湯 黑錫丹, 心腎丸 鎮陰煎, 古沈附湯 既濟湯, 熄風湯	地黃(15:熟13, 乾1, 生1), 肉桂(13), 山茱萸(12), 白茯苓(11), 澤瀉(8), 山藥(8), 牡丹皮(6), 麥門冬(5), 五味子(5), 遠志(5), 肉蓯蓉(5), 石菖蒲(4), 牛膝(4), 薑(4:生4), 巴戟(4), 石斛(4), 龍骨(4), 人蔘(3), 白芍藥(3), 甘草(3), 沈香(3), 牡蠣(3), 薄荷(3), 當歸(2), 大棗(2), 胡蘆巴(2), 肉豆久(2), 木香(2), 茴香(2), 黑錫(2), 硫黃(2), 故紙(2), 陽起石(2), 黃芪(1), 車前子(1), 白茯苓(1), 金鈴子(1), 川棟子(1), 菟絲子(1), 羊肉(1), 鹿茸(1), 半夏(1), 桂枝(1), 赭石(1), 葱白(1)
四逆湯, 通脈四逆湯 回陽返木湯, 益元湯 眞武湯, 附子理中湯	薑(9:乾7, 生2), 甘草(7), 人蔘(4), 白朮(3), 麥門冬(3), 五味子(3), 白茯苓(2), 白芍藥(2), 陳皮(2), 黃連(1), 艾葉(1), 知母(1), 大棗(1), 葱白(1)
連附六一湯	黃連(4), 生薑(4), 大棗(4)
引神歸舍丹 神聖復氣湯 小續命湯 健步虎潛丸 天麻丸	地黃(5:熟1, 乾1, 生3), 當歸(4), 人蔘(4), 防風(4), 羌活(4), 杜沖(3), 白芍藥(3), 川芎(3), 甘草(3), 牛膝(3), 薑(3:乾1, 生2), 麻黃(2), 獨活(2), 天麻(2), 葶藶(2), 防己(2), 肉桂(2), 杏仁(2), 黃芩(2), 玄蔘(2), 大棗(2), 黃芪(2), 黃柏(2), 南星(1), 朱砂(1), 枸杞子(1), 龜板(1), 知母(1), 白朮(1), 半夏(1), 升麻(1), 細辛(1), 蔓荊子(1), 柴胡(1), 藜本(1), 虎脛骨(1), 破古紙(1), 麥門冬(1), 黃連(1), 白茯苓(1), 木果(1), 石菖蒲(1), 酸棗仁(1), 遠志(1), 薏苡仁(1), 五味子(1), 沈香(1), 枳角(1), 草豆蔻(1), 橘紅(1), 郁李仁(1), 白芥花(1)

* () 안의 숫자는 약물의 사용횟수임.

<표 2>

	出典	用量	修治	製法	服用法
地黃飲子	醫學心悟	1.0	炮	水煎	
	醫方集解	等分	炮	水煎	
	中醫內科學				
	方藥合編解說	0.5	炮	水煎	空心
八味地黃丸	醫學心悟	0.5		水煎, 蜜丸	
	醫方集解	10.0		蜜丸	空心, 鹽湯或溫酒
	景岳全書	10.0	製	水煎, 蜜丸	空心, 淡鹽湯
	醫學入門	10.0		蜜丸	空心, 白湯或溫酒
	中醫內科學				
加味八味丸	醫學入門	20.0		蜜丸	空心, 米飲
羊肉湯	醫方集解	20.0	炮	水煎	
益元湯	醫方集解		炮	水煎	童便1匙, 冷服
黑錫丹	景岳全書	10.0		酒糊丸	空心, 薑鹽湯
	醫學入門	10.0		酒糊丸	空心, 薑鹽湯或棗湯
心腎丸	景岳全書	10.0	炮	酒炙麵糊丸	空心, 棗湯或清湯
鎮陰煎	景岳全書	0.5-0.7 或 1.0-3.0	製	水煎	冷服
	方藥合編解說	0.5-0.7 或 1.0-3.0		水煎	冷服
古沈附湯	醫學入門	3.0		水煎	
既濟湯	東醫寶鑑	2.0	炮	水煎	
	醫學衷中參西錄	1.0			
神聖復氣湯	東醫寶鑑	0.3	炮	水煎	空心, 熱服
熄風湯	醫學衷中參西錄	1.0			
健步虎潛丸	萬病回春	5.0	童便浸, 煨	猪脊髓斗 蜜丸	溫水或酒
四逆湯	醫方集解	1 枚	生	水煎	冷服
	景岳全書	1 枚	生	水煎	溫服
通脈四逆湯	方藥合編解說	半枚	生	水煎	冷服
回陽返木湯	醫方集解	1 枚	生	水煎	冷服
	方藥合編解說	半枚	生	水煎	冷服
眞武湯	醫方集解	1 枚	炮		
	方藥合編解說	3.0	炮	水煎	약간 식혀 복용
附子理中湯	東醫寶鑑	1.0	炮	水煎	
連附六一湯	醫學入門	1.0		水煎	熱服
	東醫寶鑑	1.0		水煎	熱服
	方藥合編解說	1.0		水煎	熱服
	醫學正傳	1.0		水煎	熱服
引神歸舍丹	醫學入門	7.0		猪心血로 糊丸	薑草根煎湯
小續命湯	東醫寶鑑	0.5	炮	水煎	
	方藥合編解說	0.5	炮	水煎	溫酒, 微取汗
天麻丸	東醫寶鑑	5.0	炮	蜜丸	溫酒或白湯
	萬病回春	5.0		蜜丸	空心, 酒或白湯

* 공란은 문헌에 기재가 없는 부분임. * 用量的 단위는 錢(3.75g)임.

7. 心系영역 질환 火熱證에 附子가 사용된 處方의 치료질환 빈도 각 문헌에서 기재된 각 處方이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의 빈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出典	中風	心痛	眩暈	頭痛	發熱	心悸	厥	浮腫	기타
地黃飲子	醫學心悟	*								火中
	醫方集解	*								
	中醫內科學	*								
	方藥合編解說	*								
八味地黃丸	醫學心悟			*	*					火中, 喘
	醫方集解					*				煩渴
	景岳全書									血證, 痿
	醫學入門								*	喘
	中醫內科學									
加味八味丸	醫學入門								*	
羊肉湯	醫方集解									血證
益元湯	醫方集解									躁
黑錫丹	景岳全書			*	*					
	醫學入門			*	*					血證
心腎丸	景岳全書						*			
鎮陰煎	景岳全書							*		血證
	方藥合編解說									血證
古沈附湯	醫學入門								*	
既濟湯	東醫寶鑑									虛煩
	醫學衷中參西錄		*			*				
神聖復氣湯	東醫寶鑑		*							
熄風湯	醫學衷中參西錄									類中風
健步虎潛丸	萬病回春	*								
四逆湯	醫方集解							*		
	景岳全書							*		
通脈四逆湯	方藥合編解說							*		
回陽返木湯	醫方集解							*		
	方藥合編解說							*		
眞武湯	醫方集解			*		*	*			
	方藥合編解說			*		*	*			
附子理中湯	東醫寶鑑									中寒
連附六一湯	醫學入門		*							
	東醫寶鑑		*							
	方藥合編解說		*							
	醫學正傳		*							
引神歸舍丹	醫學入門						*			癱, 健忘
小續命湯	東醫寶鑑	*								瘧
	方藥合編解說	*								
天麻丸	東醫寶鑑	*								
	萬病回春	*								
計		9	6	5	3	4	4	6	4	

* 공란은 문헌에 기재가 없는 부분임.

Ⅲ. 考 察

附子は 毛茛科(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한 多年生 草本인 栽培種 바꽃의 塊根에 附生한 子根⁴⁸⁾⁴⁹⁾으로 채취한 즉시 石灰로서 脫水乾燥한 것을 生乾附子라 하고, 防腐(鹽)하여 판매하는 것을 鹽附子라 하며, 鹽附子를 炮製하여 사용하는 것을 炮附子라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炮製한 것을 京炮附子⁵⁰⁾라 한다.

文獻에서 살펴본 附子の 味는 辛 혹은 辛甘하다. <景岳全書>와 <醫學入門>에는 鹹味도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소금에 절인 附子の 味를 말한 것이다. 약물의 五味란 酸·苦·甘·辛·鹹의 다섯가지 맛을 말하는 것으로 혹은 淡味를 포함하며, 약물의 맛에 따라 작용이 달라짐을 말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辛甘은 陽에 속하나 鹹은 陰에 속하여 辛味는 散·行의 작용, 甘味는 補·和·緩의 작용, 鹹味는 下·軟의 작용⁵¹⁾을 한다. 이는 處方에서 활용되는 附子の 修治에서도 알수 있는데, 散寒시키는 四逆湯에서는 生附子를 사용하며 腎陽을 補하는 八味地黃丸에서는 炮附子를 사용한다.

附子の 氣는 溫 혹은 熱하다고 하였는데 文獻의 대부분이 大熱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약물의 四氣란 寒·熱·溫·涼의 네 가지 藥性을 말하는 것으로 溫熱의 성질을 지닌 약물은 溫陽·救逆·散寒의 작용⁵²⁾을 지닌다. 附子の 毒性에 대하여 언급되지 않은 文獻도 있지만 대부분이 有毒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附子の 歸經에 대하여 기재되지 않은 文獻이 많고 12經이라고 한 文獻도 있지만 心·脾·腎

·三焦·命門·膀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附子は 固陽救逆 補火助陽 溫中止痛 逐風寒 濕邪⁵³⁾한다. 元陽을 補助하는 主藥으로 能升能降하며 能內達能外散⁵⁴⁾하며 그 성질이 性走而不守하여 浮中沈 無所不至 行而不止⁵⁵⁾한다. 그러므로 <本草求真>⁵⁶⁾에서는 附子が 補氣藥을 十二經으로 끌고가 散失된 元陽을 회복하고, 補血藥을 血分으로 끌고가 不足한 眞陰을 滋養하며, 發散藥을 이끌어 腠理를 열어 表에 있는 風寒을 쫓아내며, 溫暖藥을 끌고 下焦에 도달하여 裏에 있는 冷濕을 제거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附子の 성질을 小續命湯에 대한 <醫學正傳>⁵⁷⁾의 해설에 잘 나타나 있다.

<醫學心悟>⁵⁸⁾에서는 火의 치료법을 虛實과 內外로 나누어 쉽게 설명하였는데 實火는 六淫과 飲食의 損傷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니 도둑을 내쫓는 것처럼 消散·清涼·攻伐 등의 藥을 법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虛火는 七情·色慾·勞役이 神을 손상하여 안에서부터 발생한 것이니 자식을 달래는 것처럼 補氣·滋水·理脾 등의 藥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火熱證에 清法을 쓰는데 있어서 過勞로 中氣가 虛하여 熱이 나거나 產後血虛로 熱이 나거나 命門火衰하여 虛陽이 上浮하거나 陰盛格陽으로 假熱이 있는 경우는 찬약을 써서는 안된다. 또한 火를 치료하는데 外感과 內傷을 구분하여야 하는데 風寒이 火를 壅閉한 경우는 發散과 清法, 濕熱의 火는 發散·滲濕과 清法, 燥熱의 火는 滋潤과 清法, 飲食傷은 消導와 清法을 사용하지만 氣虛나 血虛는 補氣와 養血을 하여야 火가 저절로 가라앉고, 眞陰

48) 辛民教, 臨床本草學, 서울, 永林出版社, 1988, p263

49) 申信求,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1988, p23

50) 前掲書, p24

51) 辛民教, 臨床本草學, 서울, 永林出版社, 1988, p101-2

52) 前掲書, p101

53) 前掲書, p264

54)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河北,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85, p97

55) 王好古, 東垣十種醫書: 湯液本草,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383

56) 黃宮繡, 本草求真, 台北, 宏業書局有限公司, 1986, p25

57) 虞搏,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p27

58) 李源哲, 國譯醫學心悟, 서울, 書苑堂, 1994, p24-5, 51-3

이 부족하여 火가 炎上하는 것은 壯水시켜 陽光을 늘려주고 眞陽이 부족하여 火가 炎上하는 것은 火를 이끌어 그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內傷虛火의 治法이다.

心系영역 질환의 火熱證을 치료하는데 附子가 이용되는 處方을 살펴보면 질환마다 附子의 성질이 조금씩 다르게 쓰이고 있다.

地黃飮子は 河間의 <宣明方>에 나오는 處方⁵⁹⁾으로 中風의 孤陽發越·虛陽上浮 및 火中에 사용된다. 中風을 치료하는데는 眞陰虛를 근본으로 삼는데 陰中之火虛한 者는 河間의 地黃飮子를 위주로 해야 한다. 風淫의 勝한 바와 火中에 桂附를 사용하는 것은 腎虛하여 眞陰의 失守로 孤陽이 發越한 것을 桂附를 이용하여 散失된 元陽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즉 腎陽이 떠올라 丹田이 虛冷하게 되고 痰飮이 上湧하는 것은 水가 源에 歸하지 못함이고 面赤煩躁한 것은 火가 源에 歸하지 못한 것이니 오직 桂枝와 附子라야 능히 火를 인솔하여 源에 복귀한다. 水와 火가 그 源에 복귀하면 水能生木하고 木不生風하여 風이 자연히 가라앉는다.⁶⁰⁾⁶¹⁾ 그러므로 心系영역 질환의 火熱症을 치료하는 地黃飮子の 附子는 腎虛하여 眞陰의 失守로 孤陽이 發越한 것을 源으로 인솔하여 散失된 元陽을 회복하는 역할을 한다. 熟地黃은 滋陰, 巴戟·肉蓯蓉·官桂·附子는 眞元의 火를 回返, 石斛은 安脾固氣, 山茱萸는 溫肝堅精, 菖蒲·遠志·茯苓은 補心하여 腎臟과 통하고, 麥門冬·五味子是 補肺滋水하여 水火相交한다. 水火相交하면 精氣가 盛해져 風火가 저절로 없어진다.⁶²⁾

桂附八味丸 즉 八味地黃丸은 <金匱要略>에

나오는 處方⁶³⁾으로 火中, 喘, 頭痛, 眩暈, 大熱煩渴, 陰虛發熱, 吐血, 衄血, 齒衄舌血, 痿證, 水腫 등의 증상에 사용된다. 이는 모두 腎經의 眞陽不足 즉 命門火衰로 虛火가 뜨는 上熱下寒의 경우이며, 火熱證에 附子를 사용하는 것은 同氣相救하는 것이다. 心包相火는 命門에 附하여 남성은 藏精하고 여성은 繫胞하고 있으나 嗜慾으로 인하여 이를 枯渴시켜 火가 依附할 곳이 없기 때문에 厥逆하여 上炎한다. 또 火는 腎에서 나오니 水中之火이며 火는 水로서 可折하나 水中之火는 水로 可折하지 못한다. 桂附는 火와 그 氣가 같아 味가辛하여 능히 腠理를 開하고 津液을 致成하며 氣道를 通한다. 火의 窟宅에 依據하여 이를 招하면 同氣는 相救하여 虛火가 반드시 下降한다. 그러므로 八味地黃丸에서 桂枝와 附子는 相火를 다스리는 正藥이기도 하다.⁶⁴⁾ 薛己는 陽虛發熱에는 補中益氣湯을 써서 升舉清陽하여야 하고 陰虛發熱에는 六味地黃湯을 써서 培養陰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⁶⁵⁾ 그러나 下部는 惡寒足冷한데 上部는 渴甚躁極하고 或飮하여 反吐가 심하면 八味地黃丸을 사용한다.⁶⁶⁾ 각종 出血의 경우는 대부분 色慾勞傷過度로 인하여 眞陽이 陰分을 지키지 못하여 無根虛火가 위로 뜨는 것이니 上熱下寒이 많으며 이는 格陽虛火이니 속히 火를 끌어 그 源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⁶⁷⁾ 그러므로 心系영역 질환의 火熱症을 치료하는 八味地黃丸의 附子는 地黃飮子에서와 마찬가지로 腎陽 즉 命門火를 補하고 火를 그 源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加味八味丸은 腎虛濕熱의 水腫에 사용되며, 八味地黃丸에 牛膝·車前子를 加한 것으로 牛

59) 申載鏞, 方藥合編解說, 서울, 成輔社, 1989, p21-2
60) 汪昂, 醫方集解(國譯),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298-9
61) 李源哲, 國譯醫學心悟, 서울, 杏苑堂, 1994, p154
62) 申載鏞, 方藥合編解說, 서울, 成輔社, 1989, p22
63) 張仲景, 仲景全書;金匱要略, 서울, 大星文化社, p368-9
64) 汪昂, 醫方集解(國譯),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47-8
65)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208
66) 汪昂, 醫方集解(國譯),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239
67)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8, p上619

膝·車前子로 利水시켜 濕熱을 제거하고 附子는 八味地黃丸에서와 같이 腎陽을 補하는 역할을 한다.

羊肉湯은 熱이 上焦를 침범한 失血에 사용하는데 병든 사람의 안색이 비록 陽熱해 보어도 이는 熱이 上焦에 침범하고 中下焦는 陰氣가 盛한 것이니 下焦를 조화시켜 陽이 있게 하면 上焦의 陽氣는 丹田으로 下降하여 歸宿할 곳을 알게 되는 것이다.⁶⁸⁾ 그러므로 羊肉湯에서 當歸·芍藥은 補血, 羊肉은 腎陽을 補하며 附子는 下焦의 陽氣를 補하여 熱을 丹田으로 下降시키는 역할을 한다.

黑錫丹은 <和劑局方>에 나오는 處方으로 眩暈, 頭痛, 吐血에 사용하는데, 眩暈은 腎水虧竭하여 心火炎盛한 上盛下虛의 경우이며 頭痛은 下元虛寒의 경우이며 吐血은 극도의 下虛로 氣壅하여 血不歸元한 증상이다. 黑錫丹은 溫腎, 補陽하는 약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附子도 이러한 작용을 한다.

心腎丸은 怔忡에 사용하는데 이는 水火不濟로 인한 경우를 치료한다.

鎮陰煎은 <景岳全書>에 나오는 處方⁶⁹⁾으로 厥逆, 吐血, 衄血에 사용하는데 이는 陰虛格陽으로 眞陽이 지키지 못하여 虛火가 뜬 上熱下寒의 경우이다. 아래로 陰虛하고 위로 格陽하니 眞陽失守하여 洩이 따라 넘쳐 大吐大衄하고 六脈細脫 手足厥冷하는 것이다. 급할 때 止血이 안되면 이를 복용시켜 孤陽을 源에 歸하게 하면 血은 저절로 안정된다.⁷⁰⁾ 鎮陰煎의 附子도 八味地黃丸에서와 같이 陽을 補하고 孤陽을 源에 돌아가게 한다.

古沈附湯은 陽虛의 水腫에 사용되는데 上盛下虛의 경우이다. 沈香으로 降氣시키고 附子로 補陽한다.

既濟湯은 <東醫寶鑑>과 <醫學衷中參西錄>

에 있는 處方이 명칭만 같고 다른 處方이다. 前者는 陰虛內熱로 인한 霍亂後의 虛煩에 쓰는데 附子和 人蔘이 君藥으로 사용되며, 後者는 陰陽兩虛하여 上熱下涼으로 인한 陰虛勞熱, 心痛, 脫證에 쓰는데 熟地黃과 山茱萸가 君藥으로 사용된다. 前者의 경우는 人蔘·甘草와 같은 甘溫한 약으로 熱을 除하는 것이고, 後者는 陽이 上脫하는 것이 眞陰虛損하여 元陽을 潛藏하지 못하므로 陽氣가 매여 있지 못하고 上奔하는 것이니 處方中에 熟地黃과 山藥으로 眞陰을 補하면 陰이 스스로 潛陽한다. 附子の 辛熱한 성질을 佐로 삼아서 元氣와 同氣가 되고, 芍藥의 苦降한 성질은 浮越된 元陽을 끌고宅으로 下歸하는 것을 돕는다.⁷¹⁾ 前·後者에서 쓰인 附子는 그 辛熱한 성질로 인해 元陽을 회복하고 熱을 除하는 역할을 한다.

熄風湯은 類中風에 사용되는데 下焦의 陰分이 虧損되어 上焦의 陽分을 붙잡지 못하여 陽氣가 脫而上奔하고 아울러 肝風이 動한 것이다. 赭石은 人蔘을 佐로 絕陽된 것을 회복하고 龍骨·牡蠣는 收斂하니 陽이 下濟할 수 있다. 山茱萸는 熟地黃을 佐로 補陰하고 附子는 溫煦하여 陰이 上達할 수 있다. 芍藥은 附子和 함께 사용하여 능히 浮越된 元氣를 收斂하고 陰에 歸藏할 수 있다.⁷²⁾

四逆湯은 <傷寒論>에 나오는 處方⁷³⁾으로 陰厥에 사용되는데 陰盛格陽, 裏寒外熱의 경우이다. 四肢는 諸陽의 本이니 寒하면 血脈이 凝澁하여 陽氣가 잘 敷布하지 못하므로 一身 盡痛하고 手足厥冷한다. 도리어 惡寒하지 않고 面赤發躁하는 것은 陰이 盛하여 밖으로 格陽되는 것이다. 寒이 체내에 侵淫하면 甘熱로 다스리므로 乾薑과 附子の 大熱한 약재로써 陽氣를 伸發하여 寒邪를 表散하고, 甘草는 역시 補中散寒하는 약이며 또한 乾薑과 附子の 위로

68) 江址, 醫方集解 氣譯,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95

69)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8, pF443

70) 前掲書, pF443

71)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河北,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85, p上24

72) 前掲書, p上309

73) 張仲景, 仲景全書:傷寒論, 서울, 大星文化社, p134

上僭함을 緩解한다.74)

通脈四逆湯은 四逆湯에 乾薑을 倍量한 處方으로 假熱의 厥에 사용된다.

回陽返木湯은 四逆湯에 生脈散을 合方하여 陳皮를 加한 것으로 陰盛格陽의 厥에 사용한다.

益元湯은 陰躁에 사용하는데 이는 陰盛格陽(戴陽)으로 인한 경우이다. 黃連은 위로 뜨는 火를 꺾고, 附子·乾薑·艾葉은 回陽하며, 人蔘·甘草는 陽虛를 補하여 陰火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니 甘溫이 능히 大熱을 除하는 것이다.75) 그러므로 益元湯에서 附子は 回陽하는 역할을 한다.

眞武湯 역시 <傷寒論>의 處方76)으로 腎中之陽虛로 虛陽이 內動한 發熱과 眩暈에, 腎의 陽이 虛하여 능히 制水하지 못하여 위로 凌心한 心悸에 사용된다. 附子は 陽을 補하고 白朮·茯苓으로 滲濕하여 水氣를 除한다.77)

附子理中湯은 中寒에 사용하는데 비록 燥熱, 煩渴하더라도 附子は 人蔘, 乾薑, 甘草와 함께 溫陽散寒시킨다.

連附六一湯은 <醫學正傳>에 인용한 丹溪의 處方으로 熱證의 心痛, 胸痛에 사용하며 黃連을 君으로하여 清熱止痛하고, 辛甘大熱의 附子를 加하여 熱로써 熱을 다스리는 反治를 꾀한 것이다.78)

引神歸舍丹은 痰火로 인한 癇, 驚悸, 怔忡, 健忘에 사용된다.

神聖復氣湯은 腎心痛에 사용되는데 이는 上熱如火 下寒如冰의 경우이다. 이는 清熱, 發散, 補血, 補氣, 溫陽하는 약들이 高루 포함되어 있다.

小續命湯은 風氣太盛 心火暴升한 中風과 瘓에 사용한다. 心火가 타올라 痰涎이 經絡을 막으면 附子の 雄壯한 性질과 奪將之勢는 人蔘을 12經으로 끌고가 散失된 元陽을 회복하고,

麻黃 防風 杏仁을 끌어 發表시키고 腠理를 열어 表에 있는 風寒을 흩어내고, 當歸 川芎을 血分으로 끌고가 行血 養血하여 虧損된 眞陰을 滋養한다.79)

健步虎潛丸은 中風의 虛熱證에 사용되는 處方이다. 補氣, 補血, 補陰, 補陽, 發散하는 약들이 高루 포함되어 있다.

天麻丸은 中風熱證에 사용하는데 發散, 補陰하는 약물에 附子를 佐로 사용하였다.

以上과 같이 心系영역 질환의 火熱證을 치료하는데 附子가 이용되는 處方을 살펴보면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는 上盛下虛, 上熱下寒의 경우에 地黃飮子나 八味地黃丸과 같이 附子가 命門火衰를 補하면서 虛火를 根源으로 돌아가게 하는 類型이다. 둘째는 陰盛格陽, 寒寒外熱의 경우에 四逆湯이나 回陽返木湯과 같이 附子가 散寒하고 回陽하는 類型이다. 셋째는 熱證에 連附六一湯과 같이 清熱시키는 藥과 함께 附子가 熱因熱用하는 反治를 하는 類型이다. 넷째는 風·痰證에 小續命湯과 같이 發散, 補血, 補氣, 清熱 등의 藥들과 附子가 함께 쓰여 元陽을 補助하는 동시에 能升能降하며 能內達能外散하는 작용을 하는 類型이다.

心系영역 질환 火熱證에 附子가 사용된 處方の 구성藥물 사용빈도를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네가지 유형에 따라 배합약물에 차이가 있다.

地黃飮子나 八味地黃丸과 같은 類型은 熟地黃, 肉桂, 山茱萸, 白茯苓이 10회 이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藥물이며 이는 주로 補陰·補陽·利水藥物과 배합된다고 할 수 있다. 沈金鰲은 陰陽이 俱虛하거나 陰虛가 陽虛보다 甚한 사람은 熱藥으로 治療하면 반드시 害가 되므로 附子뿐 아니라 薑桂도 반드시 滋陰藥을

74) 汪昂, 醫方集解(國譯),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321-2

75) 前掲書, p345-6

76) 張仲景, 仲景全書:傷寒論, 서울, 大星文化社, p272

77) 汪昂, 醫方集解(國譯),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331-2

78) 申載鏞, 方藥合編解說, 서울, 成輔社, 1989, p175

79) 虞搏,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5, p27

같이 써야하며 만일 단지 補陽藥과 더불어 쓰면 有濟를 보지 못한다고 하였다.⁸⁰⁾ 熟地黃을 사용함에 있어서 丹溪는 附子가 走하고 不守하여 그 健悍走下의 性質을 取하여 地黃의 膩滯를 行하여 능히 致達케 할 뿐이라고 하였으나, 王履는 附子는 補陽藥이지 行滯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⁸¹⁾

四逆湯이나 回陽返本湯과 같은 類型은 乾薑, 甘草, 人蔘이 가장 많이 사용된 藥物이며 이는 주로 祛寒·回陽시키는 藥物과 배합된다고 할 수 있다. 四逆湯類는 生附子를 사용하는데, 甘草나 乾薑을 같이 끓이면 附子의 毒性이 저하되므로 去寒劑에 자주 甘草나 乾薑을 함께 사용한다.⁸²⁾

連附六一湯은 黃連이 君藥이며 이는 清熱藥物과 배합되어 熱因熱用한 反治의 경우이다.

小續命湯과 같은 類型은 羌活, 防風, 人蔘, 當歸가 가장 많이 사용된 藥物이며 이는 주로 發散·補氣·補血 등의 藥物이 고루 배합된다고 할 수 있다.

心系영역 질환 火熱證에 附子가 사용된 處方에서 附子用量은 문헌마다 處方의 貼, 半劑, 1劑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록이 없고 통일되지 않아 貼當 用量을 정확히 비교하기 곤란하지만 대부분 0.5-3錢(약 2-12g) 정도이며 四逆湯類는 半-1枚를 사용한다. 附子가 작은 것은 藥力이 弱하고 큰 것은 性質이 세며, 古方에 大附子로 1兩 무거운 것은 그 藥力이 큰 것이라 하였다.⁸³⁾ 附子는 補藥작용을 증강시키는 데는 1.5-4.5g, 強心 濕中散寒止痛에는 4.5-9g, 虛脫이나 shock에는 18-30g, 심하면 30g정도를

사용⁸⁴⁾하며 보통은 1.5-9g, 大劑는 30-60g을 사용한다.⁸⁵⁾

心系영역 질환 火熱證에 附子가 사용된 處方에서 附子의 修治를 살펴보면 四逆湯, 通脈四逆湯, 回陽返本湯에서만 生附子로 사용되고 그 외의 處方에서는 炮나 煨의 修治를 하였다. 附子는 生用은 發散하고 熟用은 峻補⁸⁶⁾한다고 하였는데 四逆湯에서 生用하는 것은 寒邪를 表散하는 작용을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本草綱目>에서 生用은 陰制之法으로 껍질과 배꼽을 제거하고 藥에 넣고, 熟用은 물에 담근 다음 쪄지도록 炮하여 껍질과 배꼽을 제거하고 다시 切片을 炒하여 안과 밖이 모두 누렇게 되어 火毒을 제거한 다음에 藥에 넣는데, 다른 방법은 附子 1개냥 甘草 2錢, 소금물, 薑汁, 童尿 半盞을 함께 끓여 하룻밤 火毒을 빼내면 毒이 없어진다고 하였다.⁸⁷⁾ 이와 같이 대부분의 문헌에서 附子를 修治하는 방법은 黑豆煎水, 浸甘草湯, 薑汁에 담그거나 써서 안팎에 누렇게 炮 혹은 炒한다고 하였다.⁸⁸⁾⁸⁹⁾

心系영역 질환 火熱證에 附子가 사용된 處方의 製法은 水煎이 가장 많고 그 다음 蜜丸하거나 糊丸한다. 生附子를 사용하는 四逆湯類는 모두 水煎하고 蜜丸이나 糊丸하지 않는데, 이는 결국 附子를 사용할 때 炮하거나 水煎하거나 熱이 가해진다고 할 수 있다. 生附子는 쉽게 중독되므로 附子는 1시간이상 끓여야 心臟에 대한 독성이 저하되고 強心작용은 보존된다.⁹⁰⁾

心系영역 질환 火熱證에 附子가 사용된 處方의 服用法은 水煎하여 空心에 服用하거나

80)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1988, p27
81)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上1162
82) 崔樹德, 中藥大全, 河北, 黑龍江科學技術出版社, 1989, p347-8
83) 許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0, 湯液編 卷3, p271
84) 崔樹德, 中藥大全, 河北, 黑龍江科學技術出版社, 1989, p348
85) 辛民教, 臨床本草學, 서울, 永林出版社, 1988, p264
86)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上1160
87) 前掲書, p1160
88)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8, p下368-9
89) 李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6, 本草編, p263
90) 崔樹德, 中藥大全, 河北, 黑龍江科學技術出版社, 1989, p348

蜜丸이나 糊丸을 鹽湯, 溫酒, 白湯, 米飲, 棗湯 등으로 마시는데 引神歸舍丹은 荳草根煎湯으로 마신다. 神聖復氣湯과 連附六一湯은 熱服하고, 四逆湯, 通脈四逆湯, 回陽返木湯과 鎮陰煎은 冷服한다. 益元湯은 童便을 한 수저 넣어 冷服한다. 小續命湯은 服用後 湯을 약간 낸다. 附子藥은 일반적으로 溫服이 좋으나 極度の 陽虛者는 熱服을 하기도 한다.⁹¹⁾ 附子が 들어간 藥을 冷服하는 것은 熱因寒用으로 陰寒이 아래 있고 虛陽이上浮할 때 寒으로 치료하면 陰氣가 더욱 심해지며 熱로써 치료하면 拒格되어 不納하므로 熱藥을 차게 마시면 冷體는 사라지고 熱性이 다시 발휘되어 病氣가 낫는 것이니 이는 反治의 妙라 할 수 있다.⁹²⁾⁹³⁾⁹⁴⁾ 益元湯에 童便을 한 수저 넣어 冷服하는 것도 熱因寒用이다.⁹⁵⁾

心系영역 질환 火熱證에 附子が 사용된 處方의 치료질환은 中風이 가장 많고 心痛, 厥, 血證, 眩暈, 發熱, 心悸, 浮腫, 類中風, 頭痛, 喘, 煩의 순서로 많았으며 그 외 痿, 躁, 癰, 健忘, 瘡가 있다. 이 가운데 實熱證은 連附六一湯이 치료하는 熱心痛의 경우밖에 없으며, 대부분의 症狀은 腎經의 眞陽不足으로 虛火가 뜨는 경우와 陰寒이 盛하여 格陽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心系영역 질환 火熱證에 附子が 사용된 處方은 附子の 역할과 배합약물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腎陽虛衰로 虛火이 뜨는 경우로 熟地黃·肉桂·山茱萸·白茯苓 등의 補陰·補陽·利水藥物과 주로 배합되어 附子が 命門火衰를 補하면서 虛火를 根源으로 돌아가게 하며, 둘째는 陰寒이 盛하여 陰盛格陽하는 경우로 乾薑·甘草·人蔘 등의 祛寒·回陽시키는 藥物과 배합되어 附子が 散寒하고 回陽하며, 셋째는 熱證의 경우

에 黃連과 같은 清熱藥物과 배합되어 附子が 熱因熱用하며, 넷째는 羌活, 防風, 人蔘, 當歸 등의 發散·補氣·補血 등의 藥物이 고루 배합되어 元陽을 補助하는 동시에 能升能降하며 能內達能外散하는 작용을 한다. 實熱證을 치료하는 例는 連附六一湯에서와 같이 清熱藥에 補佐하는 경우외에는 없다.

心系영역 질환 火熱證에 附子が 사용된 處方은 補陽, 補氣, 補陰, 補血, 利水滲濕, 收斂, 發散, 清熱, 去痰 등의 藥物들과 배합되어 사용되는데, 특히 處方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腎陽을 補하는 處方에서는 熟地黃과 같은 약물이 많이 사용되는데도 中氣를 다스리는 약물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대개 陽은 陰이 없으면 고립된 陽이 되어 불을 곳이 없으므로 扶陽을 하자면 和陰을 겸하여야 한다⁹⁶⁾고 하였는데 補陰하는 약은 膩滯하기 쉬운 약물이 많다. 丹溪는 附子が 熟地黃의 膩滯를 行하게 한다⁹⁷⁾고 하였지만, 心系영역 질환 火熱證에 附子를 사용할 때 滋陰藥과 배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膩滯하지 않도록 中氣를 通하게 하는 藥物의 配合에 대하여 많은 임상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結 論

心系영역 질환 火熱證에 附子が 사용된 處方을 문헌에서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心系영역 질환의 火熱證을 치료하는데 附子의 역할을 살펴보면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는 上盛下虛·上熱下寒의 경

91) 前掲書, p347-8
 92)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上1162
 93) 崔樹德, 中藥大全, 河北, 黑龍江科學技術出版社, 1989, p347-8
 94) 汪昂, 醫方集解(國譯),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321-2
 95) 前掲書, p345-6
 96) 前掲書, p345-6
 97)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上1162

우에 附子가 命門火衰를 補하면서 虛火를 根源으로 돌아가게 하는 類型이며, 둘째는 陰盛格陽·裏寒外熱의 경우에 附子가 散寒하고 回陽하는 類型이며, 셋째는 熱證에 清熱시키는 藥과 함께 附子가 熱因熱用하는 反治를 하는 類型이며, 넷째는 風·痰證에 附子가 元陽을 補助하는 동시에 藥物을 行하게 작용을 하는 類型이다.

2. 心系영역 질환 火熱證에 附子와 配合된 藥물의 頻度를 살펴보면 腎陽虛衰로 虛火가 뜨는 경우는 熟地黃·肉桂·山茱萸·白茯苓 등의 補陰·補陽·利水藥物과 주로 배합되며, 陰寒이 盛하여 陰盛格陽하는 경우는 乾薑·甘草·人蔘 등의 祛寒·回陽시키는 藥物과 배합되며, 實熱證의 경우는 黃連과 같은 清熱 藥物과 배합되며, 風·痰證의 경우는 羌活·防風·人蔘·當歸 등의 發散·補氣·補血·去痰·清熱 藥物과 배합된다. 그러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腎陽을 補하는 경우, 滋陰藥이 많이 배합되는데도 中氣를 다스리는 藥물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3. 心系영역 질환 火熱證에 사용되는 附子の 用量은 0.5-3錢(약 2-12g) 정도이며 四逆湯類는 半-1枚를 사용한다.
4. 心系영역 질환 火熱證에 사용된 附子の 修治를 살펴보면 四逆湯·通脈四逆湯·回陽返木湯에서만 生附子로 사용되고 그 외의 處方에서는 炮나 燂의 修治를 하였다.
5. 心系영역 질환 火熱證에 附子가 사용된 處方の 製法은 水煎이 가장 많고 그 다음 蜜丸하거나 糊丸한다. 生附子를 사용하는 四逆湯類는 모두 水煎하므로 附子는 사용할 때 炮하거나 水煎하거나 熱이 加해진다고 할 수 있다.
6. 心系영역 질환 火熱證에 附子가 사용된 處方の 服用法은 四逆湯·通脈四逆湯·回陽返木湯과 같은 陰盛格陽의 증상에 사용하는 處方은 冷服한다.
7. 心系영역 질환 火熱證에 附子가 사용된 處

方으로 치료하는 질환은 中風이 가장 많고 心痛, 厥, 血證, 眩暈, 發熱, 心悸, 浮腫, 類中風, 頭痛, 喘, 煩의 순서로 많았으며 그 외 痿, 蹠, 癰, 健忘, 疰가 있다. 이 가운데 實熱證은 連附六一湯이 치료하는 熱心痛의 경우밖에 없으며, 대부분의 症狀은 腎經의 眞陽不足으로 虛火가 뜨는 경우와 陰寒이 盛하여 格陽되는 경우이다.

以上에서 心系영역 질환 火熱證에 附子를 사용할 때 滋陰藥과 배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膩滯하지 않도록 하는 藥物의 配合에 대하여 많은 임상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참고문헌

1. 龔廷賢, 萬病回春, 서울, 醫聖堂, 1993
2. 具本泓 外 4名, 東醫心系內科學, 서울, 書苑堂, 1991
3. 虞搏,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4.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1988
5. 辛民教, 臨床本草學, 서울, 永林出版社, 1988
6. 申載鏞, 方藥合編解說, 서울, 成輔社, 1989
7. 吳普, 神農本草經, 서울, 醫道韓國社, 1976
8. 汪昂, 醫方集解(國譯), 서울, 大星文化社, 1984
9. 李京燮 外 18名, 東醫心系內科學, 서울, 書苑堂, 1995
10. 李東垣, 東垣十種醫書(湯液本草), 서울, 大星文化社, 1983
11. 李源哲, 國譯醫學心悟, 서울, 書苑堂, 1994
12. 李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6
13.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8
14. 張仲景, 仲景全書: 金匱要略·傷寒論, 서울, 大星文化社
15. 許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0
16.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17. 新文豐出版公司, 新編中藥大辭典,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18. 上海中醫學院, 中醫內科學, 香港,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83
19. 李時珍, 本草綱目(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20.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河北,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85
21. 朱震亨, 丹溪醫集;丹溪心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22. 崔樹德, 中藥大全, 河北, 黑龍江科學技術出版社, 1989
23. 黃宮繡, 本草求真, 台北, 宏業書局有限公司, 1986
24. 梁吉承, 附子 부타놀 分割이 心筋 收縮蛋白에 미치는 影響, 서울, 大韓藥理學雜誌 第12卷 1號, 1976
25. 矢數道明, 陰證の 浮腫・腹水に對する附子の利尿效果につらて, 日本東洋醫學會誌 14卷 4號, 1976

=Abstract=

A Study on a paradigm of Radix Aconiti(附子) in the treatment of heart-systemic disease(心系疾患) due to heat syndrome(熱證).

Kyung-Ae Lee · Won-Chul Lee · Jung-Nam Kweon*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We inquired into the prescription including Radix Aconiti(附子) on the records of the past. According to the role of Radix Aconiti(附子), we can divide into four group.

(1) In the case of excess in the upper and deficiency in the lower(上盛下虛), heat in the upper and cold in the lower(上熱下寒), Radix Aconiti(附子) supplies the fire from the gate of life(命門火) and the fire of deficiency type(虛火) is recurred into the origine(根源) by it.

(2) In the case that Yang(陽) is kept externally by Yin(陰)-excess in the interior(陰盛格陽), and there is heat syndrome in the exterior with cold syndrome in the interior(裏寒外熱), Radix Aconiti(附子) can remove cold(祛寒) and revitalizes(回陽).

(3) In the case of the heat of excess type syndrome(實熱證), Radix Aconiti(附子) treats heat-syndrome(熱證) with heat-clearing(清熱) drug.

(4) In the case of wind-syndrome(風證) and phlegm-syndrome(痰證), Radix Aconiti(附子) supplies the kidney-Yang(元陽) and promotes movement of the other drugs.

According to frequency in use of drugs, we can divide into four group.

(1) In the case of the fire of deficiency type(虛火), Radix Aconiti(附子) is used with drugs of invigorating-Yin(補陰), invigorating-Yang(補陽) and diuresis(利水), such as Rhizoma rehmanniae(熟地黃), Cortex cinnamomi(肉桂), Fructus corni(山茱萸), Poria(白茯苓), etc.

(2) In the case that Yang is kept externally by Yin(陰)-excess in the interior(陰盛格陽), Radix Aconiti(附子) is used with drugs of dispelling cold(祛寒) and revitalization(回陽), such as Rhizoma zingiberis siccatum(乾薑), Radix glycyrrhizae(甘草), Radix ginseng(人蔘), etc.

(3) In the case of the heat of excess type syndrome(實熱證), Radix Aconiti(附子) is used with drugs of heat-clearing(清熱), such as Rhizoma coptidis(黃連).

(4) In the case of wind-syndrome(風證) and phlegm-syndrome(痰證), Radix Aconiti(附子) is used with drugs of dispersing(發散), invigorating(補氣), enriching the blood(補血), removing the phlegm(去痰), heat-clearing(清熱), such as Radix osterici koreani(羌活), Radix ledebouriellae(防風), Radix ginseng(人蔘), Radix angelicae gigantis(當歸), etc.

Especially in many of cases, Radix Aconiti(附子) is used with drugs of nourishing-Yin(滋陰), but it is hardly used with drugs of treating middle-jiao energy(中氣).

Key word : Radix Aconiti, heart-systemic disease, heat-syndrome